

## 무창돈사를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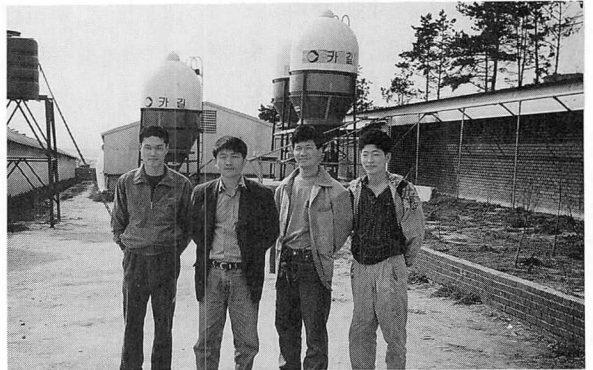
# 고려축산

— 취재 : 이병석 —

보통 무창돈사라함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무창돈사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처음 설치시 기존 돈사에 비해 평당 설치비가 월등히 많이 들고 기존에 설치한 농장의 경우 환기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다시 기존의 돈사로 개조하는 등 무창돈사를 이용한 농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관계로 무창돈사는 아직까지 양돈농가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무창돈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은 국내에서 2~3 군데에 불과하며 필자가 찾아간 고려축산의 경우도 중간 정도 수준의 비육돈 전문농장들 중에는 전남도를 통틀어 이곳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한다.

### 평당사육두수 재래식돈사보다 높아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정도 달리다가 전북 정읍톨게이트를 나와서 국도로 고창광영광을 지나면 전남 함평이라는 곳에 고려축산(사장 : 이건진, 34세)이 위치하고 있다. 고려축산 이건진사장은 지난 88년 경기도 안성에서 안성농전(현 안성산업대)축산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함평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어 양돈업을 하던 중 지난 93년도에 주위의 권유로 정부에서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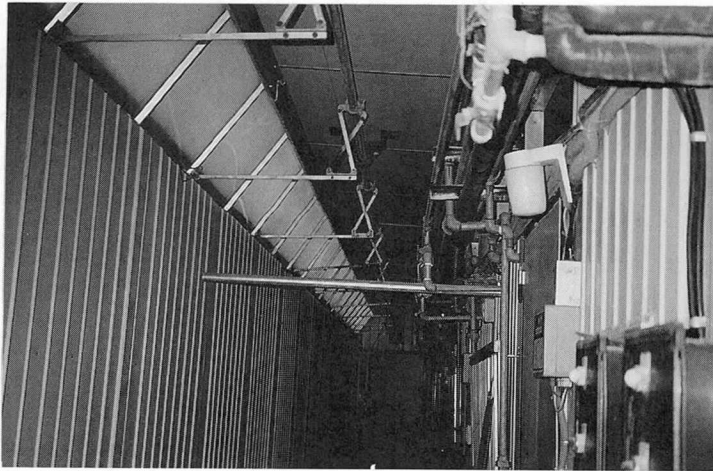
▲ 고려축산 이건진 사장(좌에서 두번째)과 직원들이 돈사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축농가 지원금 1억5천만원과 자부담 등 총 건축비 4억원을 들여 기존의 재래식 돈사를 헐고 무창돈사로 신축하였다. 무창돈사는 평당 사육두수가 일반돈사에 비해서 1/3 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10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돈사는 비육돈 300두 사육이 가능한데 반해 무창돈사는 400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평당 수용두수를 비교해보면 일반돈사에 비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고려축산 이건진사장은 말한다.

무창돈사를 설치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무창돈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모델로 설치한 기존의 농장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건진사장은

한국의 기후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온과 환기를 특히 신경써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당시 시설은 카길(사료회사)에서 환기는 태을물산(대표: 신옥기)의 도움을 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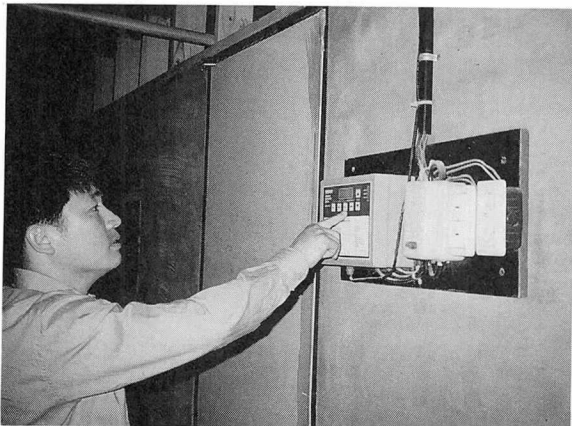
전체 4동으로 지어진 이 돈사에는 현재 모돈 220두 규모에 상시 사육두수 2,500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전체 3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 농장은 위생쪽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처음 한달간은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위생관리의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었다.



▲ 무창돈사 내부통로의 모습, 밖에서 유입된 공기는 통로에서 일단내부온도에 맞게 변화된 다음 각 돈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 올인, 올아웃 방식으로 세균에 의한 질병전파를 최대한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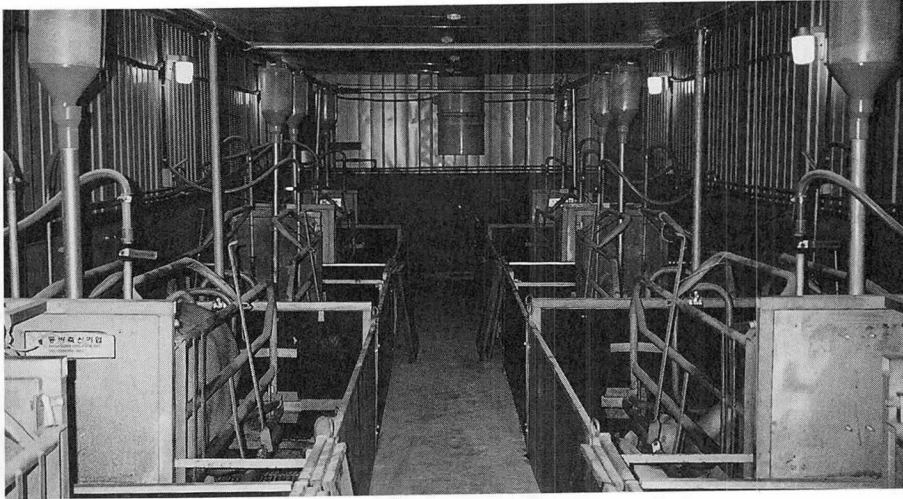
고려축산의 월 출하두수는 400~450두를 출하하는데 이 성적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수한 성적이다. 특히 무창돈사는 무엇보다도 외부의 기후 변화와는 무관하게 1년 내내 균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돼지가 성장하고, 번식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유지하여 생산성을 최대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무창돈사를 이용할 경우 올인, 올아웃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고, 돈분처리 방법도 슬러리처리를 해서 돈방과 돈방사이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



▲ 고려축산 이견진사장이 내부통로에서 온도조절센서를 조작하고 있다.

야만 완벽한 무창돈사가 될 수 있다. 특히 돈방의 크기와 돈방당 사육두수가 적당히 유지되어야만 하며, 무창돈사에서 가장 중요한 환기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그 성패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농장은 주간관리를 통해서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돈사내에 잔류되어 있는 세균에 의한 질병전파를 최대한 줄임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모성 질병 등은 여지껏 한번도 발병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분만은 유도 분만을 했었는데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야간에도 사람이 직접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였으며, 특히 월별 경영분석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폐사두수를 거의 없앴으로 1년에 2~3두의 폐사두수만 보일뿐이라고 한다. 즉 이유두수가 곧바로 출하두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작년(95년)한 해 동안에 성적을 보면 자돈수는 평균 19일령에 이유하며 모돈 1두당 연간이유자



분만돈방 내부모습  
분만돈방은 총5개로  
되어 있으며 한 돈방당  
10개의 분만틀이  
설치되어 있다.

돈수(PSY)는 23두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유 자돈에게는 섭시 32도까지 온도를 맞춰주며, 주별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장 기초적인 일 이외에는 주중에 업무를 거의 다처리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주간관리를 보면 월~화요일은 중부(인공수정)를 하며 수~금요일은 분만을 하고 특히 목요일에는 이유와 동시에 임신돈을 중부사에서 임신전기사로 임신전기사에서 임신후기사로 임신후기사에서 분만사로 차례대로 옮겨지며, 육성돈은 자돈사에서 비육사로 전체 두수가 돈방을 옮기며 비육돈 판매는 목요일을 피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인공수정은 94년도에 도입하였는데 인공수정을 한 후부터는 번식을 위한 종모돈의 수를 20두에서 5두로 줄일 수 있었으며, 여름철 혹서기의 수태율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 산자수는 평균 11.5두를 내고 수태율은 자연중부보다 높은 95%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영분석은 매주 카길사료에서 지역과장이 나와 진단해주고 있다.

### 한국형 무창돈사를 설계해야

무창돈사는 장점 이외에 단점이 있는데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농

장 자체적인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며 자본투자가 많이 들고, 보온·환기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축산 이진진사장은 “처음 무창돈사를 신축하는 경우 농장주 자신의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없다”며, 생산라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아닌 합리적인 시설투자는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한국형 무창돈사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돈사시설이 1년중 2달밖에 안되는 여름철에 맞게끔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다른 계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여름에는 해양성기후와 겨울에는 대륙성기후를 떠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진진 사장은 인근에 제2농장을 무창돈사로 신축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이유한 자돈을 사육해서 분양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무창돈사의 이해가 없는 현실의 여건속에서 고려축산은 무창돈사를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고 올리고 있으며, 무창돈사에 한껏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